

‘오징어게임’ 에미상 장벽 깬다

비영어 드라마 첫 작품상 후보
남녀 주연·조연상 대거 올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의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또 이 드라마의 주인공 ‘성기훈’으로 열연한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되는 등 출연진 4명이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수상을 놓고 각축하게 됐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ATAS)는 12일(현지시간) 제74회 에미상의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다.

‘오징어 게임’이 드라마 부문 작품상 수상 후보로 지명되면서 이 드라마는 에미상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비(非)영어 드라마가 됐다. 그동안에는 영어로 제작된 드라마에만 에미상 드라마 작품상 수상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 작품이 이 장벽을 처음으로 깬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또 작품상을 포함해 모두 14개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되면서 외국어 드라마로는 최다 부문 후보 지명 기록을 썼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오징어 게임’은 올해 시상식에서 ‘석세션’,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 등 다른 일곱 작품과 수상을 놓고 겨루게 된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이미지컷

/넷플릭스 트위터

이정재는 남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돼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 ‘석세션’의 브라이언 콕스, ‘베터 콜 사울’의 밥 오덴커크, ‘세브란스: 단절’의 애덤 스킷, ‘석세션’의 제러미 스트롱 등 쟁쟁한 배우들과 경쟁하게 됐다.

‘조상우’ 역을 맡은 박해수, ‘오일남’을 열연한 오영수는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올라 수상을 놓고 서로 경쟁하게 됐고, ‘강새벽’을 연기한 정호연은 드라마 부문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됐다.

또 드라마의 연출·각본을 맡은 황동혁 감독

은 드라마 부문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고, 강새벽에게 일부러 게임을 저주고 죽음을 택하는 ‘지영’ 역의 이요미는 여우단역상 후보로 지명됐다.

황동혁 감독은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후보 지명을 계기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가 서로의 콘텐츠를 즐기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74회 에미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시상식은 오는 9월 12일 개최되며 NBC 방송을 통해 중계된다.

/연합뉴스

현지야 “솔직함과 유연함이 가장 큰 매력”

첫 미니음반 ‘카마이’ 발표

“감정을 고백하는 솔직함,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는 유연함이 제 강점이죠.”

싱어송라이터 현지야(HUNJIYA)는 13일 인터뷰에서 자신의 매력으로 솔직함과 유연함을 꼽았다.

현지야는 “음악 안에 제 감정을 담아 최대한 정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소개했다.

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줄곧 그곳에서 자랐다. 그는 한국계로 살면서 겪은 정체성의 혼란을 음악으로 조명해왔다.

현지야는 “인구 1만 명이 안 되는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 살았다”며 “한국인이 없다 보니 제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미국 생활을 회상했다.

낯선 동양인의 외모를 지녀 온전한 미국인도, 그렇다고 한국인도 될 수 없던 그에게 바깥 세계와의 소통 창구는 음악이었다.

현지야는 “음악은 언어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며 “언어가 다르더라도 멜로디를 통해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교에 다닐 때 한국어로 된 노래를 공정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말을 모르는 관객도 진심으로 그 곡을 즐겼어요. 온라인 음악 플랫폼에서 영어로 된 노래를 들은 한국 팬들이 언제 한국에 오는지 SNS로 물어보기도 했죠.”

음악에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현지야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영국 패션지 보그는 현지야를 ‘주목해야 할 신예 아티스트’로 선정했다.

당시 보그는 현지야의 2017년 미국 데뷔 음반 ‘리네이지’(Lineage) 대해 “깊고 개인적인 이야기와 천상의 목소리로 팬들에게



싱어송라이터 현지야

/레이블 파익스퍼미 제공

감동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후 엠넷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로 활동한 밀릭이 현지야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음악 작업을 제안했다.

현지야는 밀릭과의 작업에 대해 “아티스트로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밀릭 프로듀서가 ‘너는 정말 잘하고 있고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다. 그래서 너를 미국에서 데려온 것’이라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 데뷔 싱글을 낸 그는 13일 첫 미니음반 ‘카마이’(KHAMAI)를 발표했다.

음반에는 타이틀곡 ‘아웃그로운’(OUTGROWN) 등 7곡이 수록됐다.

현지야는 ‘아웃그로운’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를 보며 느낀 반가움과 이질감을 동시에 노래했다고 설명했다.

현지야는 “음반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행복하게 원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현지야는 협업하고 싶은 뮤지션으로 새소년을 꼽았다.

그는 “새소년의 가사와 음악성을 사랑한다”며 “(그들이) 유니크한 밴드 사운드를 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글로벌 흥행 ‘우영우’ 31개 언어 추가 서비스

넷플릭스서 10위권 유지
아시아 8개국 1위 올라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우영우’는 9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8위를 기록한 뒤 전날까지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총 10개 언어 자막으로 번역돼 넷플릭스에서 동시 공개되고 있는 ‘우영우’는 특히 아시아권 국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영우’가 한 번 이상 정상에 올랐던 해외 국가로는 일본,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8개국이다.

13일부터는 유럽, 남미 국가에서 총 31개 언어로 추가 공개돼 글로벌 흥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우 10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미국 비평가 사이트 IMDb에서 평균 평점 9점이라는 높은 별점을 기록했다.

해외 시청자들은 “지금껏 본 한국 드라마 중에 최고”, “박은빈이 자폐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섬세하게 묘사해냈다”, “현실을 꼬집는 대사가 감동적이고 공감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내를 넘어 이처럼 세계적 호평이 이어지는 것은 작품 전반에 흐르는 따뜻한 기조가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과 사회적 차별도 불편하지 않게 꼬집는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우영우’의 해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ENA 제공

인기 요인에 대해 “드라마에 감도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위기는 누구에게든 위안을 준다”며 “지금까지의 반응은 아직 시동을 건 단계이고 앞으로 더 큰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지코 27일 미니음반 ‘그로운 애스 키드’ 발표

소집해제 후 첫 신보

가수 지코가 오는 27일 네 번째 미니음반 ‘그로운 애스 키드’(Grown Ass Kid)를 발표하고 가요계에 돌아온다고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가 13일 밝혔다.

이번 미니음반은 2020년 7월 ‘랜덤 박스’(RANDOM BOX) 이후 약 2년 만에 내놓는 것이다.

지난 4월 소집해제 이후 처음 발표하는 신보다.

지코는 그간 ‘아무노래’, ‘서머 헤이트’(Summer Hate), ‘사람’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특히 ‘아무노래’는 출연 없이도 음악 프로그램 10관왕을 차지하고 멜론 일간 차트에서 52회나 1위를 거머쥐는 등 2020년 최고의 히트곡에 등극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황금연못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불만 아침 1부 8:10 해 불만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오라차 내 인생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황금가면 스페셜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생활속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맛에 산다 11:30 반짝이는 프리채널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교향이 보인다	6:10 세계테마기행 7:00 두디다중 7:15 티시테시 7:30 고고 디노 공룡 탐험대 8:00 님동명 유치원 8:20 한글왕사 아이야 9:05 빅블루 9:2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인간 이야기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통합뉴스룸 1:00 별빛다방 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2:00 통합뉴스룸 2:10 세상을 걷다 스페셜 2:30 빙과 후 초능력 3:00 브레드 이발소3 3:15 고스트볼Z 3:45 디노 피워즈 4:00 사사건건 5:00 통합뉴스룸 5:30 동물의 왕국	1:30 자본주의 학교 1:50 꿀점 영화가 좋다 3:00 KBS 뉴스타임 3:10 걸럭시 키즈 3:30 TV 유치원 4:00 누가누가 잘하나 5:00 뽀족뽀족 코코가죽 5:15 나니 뭐하니? 5: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닥터로이어 1:40 출발! 비디오 여행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뽀 좋아 좋아 3:55 기분 좋은 날 4:55 5MBC 뉴스 5:10 실화탐사대 스페셜	12:00 SBS 12 뉴스 1:50 왜 오수제인가 2:00 뉴스브리핑 4:0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5:00 SBS 오뉴스 5:50 어머니 사우스2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부모 클래스 1:00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1:50 영의대 2:45 연마를 찾자마 3:35 안전채널e 4:05 영어 스토리 타임 4:15 페퍼피그 5:00 EBS 뉴스 5:45 그린조끼 구조대 6: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6:45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7:30 한국의 둘레길 7:50 맛터사이클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이것이 야생이다3 10:45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한국인의 밥상 8:30 오라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주문을 읽은 음식2 10:50 더 라이브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가면 8:30 홍길동전 바깥 9:50 징크스의 연인 11:00 연중 라이브	6:05 생활속 오늘 저녁 7:05 생활속 연금복권 720+ 7:10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실화탐사대 10:00 삼아미팅 11:20 도포자락 휘날리며	6:20 집속 무비월드 스페셜 6:50 생활속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DNA 싱어 10: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47:0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이것이 야생이다3 10:45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11: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7월 14일 (음력 6월 16일)

<p>子</p> <p>48년생 모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다. 60년생 감당하지 못할 일은 시작을 마다. 72년생 직장가 가정 모두 순탄하다. 84년생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하라.</p>	<p>辰</p> <p>52년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 64년생 지금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라. 76년생 사랑이 재산이다. 88년생 행운과 불행은 함께 찾아오는 법이다.</p>	<p>申</p> <p>44년생 과유불급이니 중용을 실천하라. 56년생 못지않고 살고 싶어지니 죽는다. 68년생 장교에 약속한다. 80년생 가끔 인생은 한순간에 뒤집히기도 한다.</p>
<p>丑</p> <p>49년생 남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은 절대 금물이다. 61년생 아는 것이 힘이다. 73년생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도 있다. 85년생 중용을 지키면 허물이 없다.</p>	<p>巳</p> <p>41년생 오늘은 하는 일마다 다 잘된다. 53년생 일단 내뱉은 말은 주위 담을 수가 없다. 65년생 승진 운이 있다. 77년생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다.</p>	<p>酉</p> <p>45년생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없다. 57년생 진짜 내편은 가족밖에 없다. 69년생 계속해서 일이 꼬이기만 한다. 81년생 사소한 일에는 대범하게 대처하라.</p>
<p>寅</p> <p>50년생 돈 잃고 사람 잃는다. 62년생 숨겨둔 찜지 돈까지 다 사라진다. 74년생 성급한 결정은 후회를 낳는다. 86년생 먼저 제안하여 협상을 주도하라.</p>	<p>午</p> <p>42년생 행복은 만족 속에 있다. 54년생 세지 혀에서 나오는 말은 칼 만큼이나 위험하다. 66년생 생 중요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78년생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라.</p>	<p>戌</p> <p>46년생 뭉치 뭉치 해도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다. 58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70년생 투자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다. 82년생 금전문제도 고민이 생긴다.</p>
<p>卯</p> <p>51년생 의견 대립이 있다면 대화로 풀어야 한다. 63년생 무리한 투자는 삼가라. 75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87년생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다.</p>	<p>未</p> <p>43년생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55년생 노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도 있다. 67년생 기대만큼 만족스럽다. 79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찾아라.</p>	<p>亥</p> <p>47년생 인정에 무작정 끌려가면 안 된다. 59년생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자를 경계하라. 71년생 생 유희가에는 열심도 마라. 83년생 뜻밖의 행운이 있겠다.</p>